

## 2022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및 제8회 지선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출범

위원회는 2022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1월 10일(월) 발족했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3에 따라 선거일 전후로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되는데요. 출범 당일 열린 첫 회의에서 선거기사심의위원장인 김선중 법무법인 산경 대표변호사, 부위원장에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가 각각 선출됐습니다.



## 위원회 경기 강원 경남사무소 이전

위원회 경기·강원·경남사무소가 민원인의 접근성을 높이고 쾌적한 심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각각 자리를 옮겼습니다. 경기사무소는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경기문화재단 8층에서 9층으로 자리를 옮겼고, 강원사무소는 춘천시 남춘로 20 국민연금 춘천사옥 1층으로, 경남사무소는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7 한국교육직업공제회관 7층으로 이전했습니다.

## 2022년 1차 일반인 연수 실시

위원회는 3월 22일(화) 2022년도 1차 일반인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연수는 '유투브상의 인격권 침해와 혐오', '절차를 통해 알아보는 언론피해구제 제도'를 주제로 한 2개 강의로 구성되었습니다. 2022년 제2차 일반인 연수도 추후 실시될 예정입니다. 교육은 모두 무료이며,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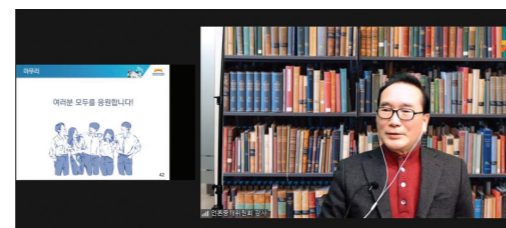
## 위원회 발간 간행물 검색 서비스 개시

등재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계간 <언론중재>, 위원회 주최 세미나/토론회 자료집 등 위원회가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내용을 키워드로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마련되었습니다.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인격권' 등 언론법제 관련 핵심 주제를 입력하면 위원회가 창립 이후 축적해온 연구물들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간행물 검색 서비스는 위원회 홈페이지 정보 자료실 메뉴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제1차 예비법조인연수 실시

위원회는 2월 7일(월)부터 11일(금)까지 제1차 예비법조인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연수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이석형 언론중재위원장의 강의를 시작으로 언론법제 및 미디어 현안 관련 다양한 전문가 강연들로 채워졌습니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77명은 언론피해구제 제도 등 관련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별 모의조정 시나리오 작성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매년 두 차례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예비법조인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 제2차 예비법조인연수는 오는 8월 실시 예정입니다.



## 언론중재위원회 2021년 연간보고서 발간

위원회는 매년 한 해 동안 위원회 활동과 향후 과제를 담은 정책보고서 성격의 연간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28일 발행된 2021년도 연간보고서에는 조정사건·시정권고·선거기사심의 등 위원회 주요 법정사업의 2021년도 청구현황 및 처리결과를 비롯해 언론피해 상담,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 조사연구 활동 등 위원회 일반 업무 내역을 수록하였습니다.

\* 연간보고서 전문은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 > 정보 자료실 > 정기 간행물 > 연간보고서에 게시돼 있습니다.

## 2021년도 위원회 주요 법정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정사건 청구현황 및 처리결과** : 2021년 위원회가 접수·처리한 조정사건은 4,278건으로 2020년 3,924건 대비 9.0%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조정사건은 매년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2021년도 조정사건의 청구권별 현황을 살펴보면, 정정보도 청구가 1,832건(42.8%)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손해배상청구 1,372건(32.1%), 반론보도청구 870건(20.3%), 추후보도청구 204건(4.8%)의 순으로 비중이 높았습니다. 조정사건의 침해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명예훼손이 4,123건(96.4%)으로 가장 많았고, 초상권 침해 66건(1.5%)·재산상 손해 47건(1.1%)·음성권 침해 13건(0.3%)·사생활 침해 12건(0.3%)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8개 중재부가 2,969건(69.4%), 지역 10개 중재부가 1,309건(30.6%)을 접수·처리하였고, 지역 중 경기중재부는 390건(9.1%)으로 서울 1개 중재부의 평균 처리 건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관할 구역이 넓고 소재 언론사 수가 많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들 조정사건의 처리결과는 조정성립 1,221건(28.5%), 취하 1,216건(28.4%), 조정불성립결정 894건(20.9%), 기각 596건(13.9%), 직권조정결정 219건(5.1%), 각하 132건(3.1%) 순이었습니다. 이러한 처리결과에 기한 2021년 피해구제율(조정심리 결과와 무관하게 정정 혹은 반론보도, 손해배상 등으로 피해구제가 된 비율)은 62.7%로 2020년의 67.8%에 비해 5.1%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2021년에는 1,372건의 손해배상이 청구되었으나 실제 금전배상이 이뤄진 것은 74건(5.4%)이었고, 최고 인용액은 15,000,000원, 평균액은 2,085,000원, 중앙액은 1,000,000원 이었습니다.

■ **시정권고 현황** : 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언론의 보도 내용에 의한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침해 사항을 심의하여 침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자발적으로 법익침해를 예방하도록 유도하는 시정권고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총 2,641개 매체를 모니터링하여 366개 매체를 대상으로 총 1,291건의 시정권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들 결정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 침해 유형은 '사생활 침해 등'으로 517건(40.0%)이었고, 그 뒤로 기사형 광고 182건(14.1%), 자살 관련 보도 156건(12.1%), 피의자·피고인 신원 공개 101건(7.8%), 성폭력 가해자 범행수법 등 묘사 61건(4.7%) 등 순이었습니다. 위원회 시정권고 결정 1,291건 중 793건에 대해 언론사가 수용하고 보도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선거기사심의 현황** : 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1항에 따라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 매체를 대상으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심의기준 위반 여부 및 위반 정도)를 자체적으로 또는 후보자의 요구에 따라 판단하여 정정·반론보도문 게재, 경고 결정문 게재, 주의사실 게재, 경고, 주의, 권고 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9일 실시된 제20대 대선 관련 선거기사심의위원회(2021년 7월 11일 출범하여 2022년 4월 8일 활동 종료 예정)는 2021년 12월 말까지 총 6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객관성 및 사실보도 조항 위반 22건, 공정성 및 형평성 조항 위반 17건 등 총 39건에 대해 경고 9건, 주의 27건, 권고 2건, 안내문 송부 1건을 의결하였습니다.